

소망 준비하기

권재훈(마르티노)

대전성모병원 호스피스자원봉사자

황금빛으로 풍성해 보이던 가을 들녘은 텅 비어있고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는 허수아비가 시린 바람을 맞고 서 있는 풍경은 보는 사람마다 각기 다른 느낌과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 것 같다.

매년 이맘때면 나는 푸른 제복에 씩씩하고 건강하던 군 복무시절 ‘유행성 출혈열’이라는 질병으로 군 병원에서 생사를 넘나들며 치료를 받았던 기억이 떠오른다. 입원 시점에 이미 정신이 혼미했고 ‘복막투석’, ‘혈액투석’ 등 생소한 치료와 여러 군의관, 간호장교, 동료 환우들의 각별한 정성과 치료의 도움으로 생명을 이룰 수 있었다. 2개월여의 치료로 정신을 되찾고 다시 움직이며 걸음을 옮길 수 있게 되었을 때 가톨릭 교리를 배우고 성탄이 지난 얼마 후 세례를 통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투병 과정에서 경험된 불편한 신체적 고통과 무의식의 환영(幻影)들은 퇴원하여 부대에 복귀하였을 때에는 물론 제대하여 사회생활을 할 때도 늘 나와 함께 있었고 일상에서 느껴지는 신체적 불편감과 뭐라고 명료하게 표현할 수 없는 놀림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미국의 학습이론가 크럼볼츠(John D. Krumboltz)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우연적 사건은 개인의 진로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진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를 ‘계획된 우연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다. 개인이 호기심을 따르거나 관심 분야에 흥미를 가지고 살다 보면 잠재적 기회를 알아채게 되고 우연

한 상황이 그에게 기회가 되어 삶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온다.’ ‘꿈은 이루어진다.’는 의미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상황에 처하여 생명이 위태로운 시간을 삶의 갈망으로 보낸 경험이 내가 호스피스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연결고리가 되었다고 분명하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이후 나는 죽음과 사후에 대한 생각이 깊어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죽음과 호스피스에 관련된 도서, 기사, 방송프로그램 등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기회가 될 때마다 관련된 자료들을 모아 정리하게 되었다. 그러던 2004년 우연한 기회에 호스피스봉사자 교육을 수료하고, 매마침 주 5일 근무제도가 시행되면서 주말에 호스피스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렇게 특이한 경험과 오랜 관심 끝에 시작된 나의 호스피스활동은 우연이론에 비추어볼 때 ‘계획된 우연’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

처음 활동을 시작하던 날 기대와 떨리는 마음으로 대면하게 된 환우들의 모습과 병실의 분위기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밝고 위생적이며 청결한 상태였다고 기억된다. 그러나 그간의 삶에서 경험한 것들이 미약 할 뿐만 아니라 감각적으로 후각이 예민하고 비위가 약하며 내향적 성격인 내가 쉽게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다. 환우들과 함께하면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잘해낼 수 있을까? 걱정과 망설임이 상당 기간 지속되었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수녀님과 선배 봉사자들의 도움과 지지가 있

있음에도 어느 때는 당황하고 어색함에 얼굴이 붉어지기도 하고 어느 때는 안도하며 활동에 익숙하여지기까지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다. 활동을 지속 하는데 또 다른 어려움은 주말에 시간을 비우는 것이었다. 주말에 이루어지는 결혼식 등의 경조사뿐만 아니라 직업인으로서 주 중에는 함께하기 어려운 모임이나 행사들은 주말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선택을 고민하게 되고 애써 동료들의 이해를 구하며 병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볍지 않았다.

그렇게 시작된 나의 서툰 호스피스활동은 이제 상당한 기간이 지나 덩덤하고 초심의 흔적은 찾아보기 어려워지며, 습관적이고 무감각하게 환우를 대하는……. 얼핏 허울 좋은 모양으로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며 각성하게 된다.

환자와 가족을 위한 돌봄에 경중이 있거나 우열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돌보는

이의 정성과 함께 더욱 효과적이고 전문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면 긍정적인 일이라는 생각과 자녀와의 사이에 깊어진 오해와 갈등을 임종 시점까지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신 환우를 적극적으로 돕지 못해 아쉬웠던 기억을 떠올리며 ‘상담기술’을 배우기로 하였다. 그러나 나태함을 경계하며 새롭게 시작한 배움으로 인하여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가 줄어들고 때로는 병실에 들어설 때 낯설고 서먹서먹한 느낌이 드는 등 도우미 활동에 방해 요인이며 주객이 전도된 느낌을 갖게 한다. 그럼에도, 지금 내게 주어진 혼란과 고민의 끝이 환우와 그 가족들에게 더욱 편안하고 적절한 무엇이 되고, 그들이 되돌아보는 삶이 아름다웠고 가치 있는 것이었음을 발견하고 수용하는 가운데 평온하고 일상 같은 임종 준비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회원되심을 축하드립니다

▶ 신입회원
유숙희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연수, 조정찬, 부천성모병원

2016년 정기총회(대의원)

: 박재순, 황관욱, 서울성모병원, 포항성모병원

2016년 전국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날

: 박재순, 유양숙

2016년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 세미나

: 유양숙, 황관욱, 서울성모병원